

◎ 이달의 주요 서평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별아의 장편 《미실》은 1억원의 고료에 값 할 만큼 신문마다 현란한 평이 이어졌다. 〈한겨레〉가 소개하듯, “주인공 미실은 삼국시대 신라 전성기의 진흥, 진지, 진평제 등 3대에 걸친 임금들과 화랑 사다함 등 당대의 영웅호걸들을 미색으로 녹여내고 끝내는 스스로 최고 권력을 획득한 여걸”이다.

〈한겨레〉는 “불충분한 사료에 흠여져 있는 고대의 사실史實과 직제 등의 고증에 쏟은 작가의 공력에, 1500년을 거슬러오른 옛 이야기를 읽기란 생각처럼 만만하지는 않다”면서도 “덩저리, 두수없다, 맏맏하다, 미추롬하다, 사로자다, 일쩍다 같은 아름다운 토속어들, 그리고 ‘미실의 혀는 목구멍 언저리까지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가 사다함이 생애에서 느끼는 모든 공포, 값없이 내뿜은 거짓말, 속절없는 회의, 쓰라린 비탄까지 날날이 더듬었다’ 와 같은 향기 있는 문장들은 독자의 수고에 충분히 값한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책에서 시도한 미실의 캐릭터는 모성과 욕망을 함께 가진 조화된 존재였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는 평을 듣는다”며 “욕망에 솔직하면서도 자유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바로 미실”이라고 색다른 해석을 가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여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이후 남성이 빚어낸 산물이란 관점으로 보면, 미실의 행각을 이해하는 데 걸려들 장애물을 쳐낼 수 있다”며 “그렇다고 ‘미실’을 페미니스트 소설로 틀 지운다면 또한 작품에 숨어 있는 많은 보물을 놓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현대의 ‘성sex과 gender의 중층적 고려들을 겨냥한 미실의 테러를 마주하는 일은, 그래서 짜릿하고 저릿한 것”이라며 이 소설의 의미를 간결하게 묘사했다. ☞

〈출판저널〉 편집부

《동물과의 대화》

작가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생존을 삶으로 바꿔놓는다. 인간의 눈에는 기계적 행동이나 해부학적 구조로만 보이는 동물들의 의사소통체계는 의외로 역동적이며 신호와 의미도 계속 진화한다. 단지 생존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놀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신호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거짓말쟁이, 연인, 그리고 영웅》

인지과학분야의 세계적 대가인 스티븐 퀴츠는 책에서 자신의 스승과 함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주장을 펼쳐 보인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과 능력은 유전에 의한 것도, 양육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물학과 문화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

《공포의 문화》

저자는 미국사회가 근거 없는 공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런 현상의 배후에 공포마케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정치인, 이익단체, 미디어라는 3대 공포행상인들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과장된 공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그러한 공포에 대해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이탈리아에서 보내온 편지》

역사책이 아닌 에세이답게 그저 르네상스 회화가 좋아서 무작정 이탈리아로 떠난 작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글이다. ‘이탈리아식 운전술’ ‘매혹의 카프리’ ‘시칠리아의 아이스크림’을 보면 낯설고 신기한 이국 풍경 사이에서 아이스크림을 훌쩍거리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동양인 처녀의 모습이 생생하다. 고대 로마부터 콘스탄티노플, 근대 베네치아, 현대 일본과 미국까지 종횡무진 산책하는 젊은 시오노 나나미의 발걸음은 30년이 지난 오늘날 보아도 여전히 유려하고 관능적이다.

〈경향신문〉

《김병종의 화첩기행3 : 고향을 어찌 잊으리》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역마직성驛馬直星이란 병에 걸린 지은이는 안식년(그는 서울대 미대 교수다)을 얻어 1년간 종횡무진 떠돌았다. 그가 이국에서 만난 예술혼의 주인공들은 ‘만인의 연인’으로 각인된 전혜린, 중국 영화사의 별이 된 김영, 대지를 적시는 자유와 저항의 노래를 부른 빅토르 최 등 14명. 지은이는 지금까지 나온 ‘화첩기행’ 중 이번 해외편을 가장 힘들게 썼다고 했다. 추측컨대 이는 여독의 피로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조국을 그리며 스러져간 예혼의 아픔을 함께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서울신문〉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란 이름은 몰라도 〈말팔랑이 삐삐〉라는 영화는 안다. 그 삐삐 때문에 원작자인 스웨덴 동화작가 린드그렌에게 폭 빠지게 된 저자가 린드그렌의 작품들과, 막 10대에 접어든 한 소녀의 고민과 갈등을 접목해 이채로운 동화를 만들었다. ‘행복한 책 읽기’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동화. 연필과 따뜻한 색깔의 물감으로 그려낸 삽화도 예뻐다.

〈조선일보〉

'세계를 뒤흔든 선언 시리즈'

'선언manifesto' 은 '분명하게 말하다'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다. 세상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선언은 부조리의 만행을 고발하는 폭로이자 그 부조리를 없애려는 도전의 선포다.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세상을 바꾸는 노력으로 전환하는 열정이 선언을 낳는다. 세계사의 고비마다 선지자들의 '선언' 이 등장해 역사란 결코 소수의 권력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밝히는 봉화불 노릇을 해왔다.

〈한겨레〉

《끝내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저자는 명가의 내력과 가문, 중요 인물들의 학문과 정치활동 등을 통해 양반가문의 삶과 문화를 그려간다. 386세대인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특정 가문의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문의 위상과 역할이다. 그에게 보학은 역사연구 방법론의 하나일 뿐이다. 책은 단순한 명가의 이야기가 아닌 조선시대의 지성사로, 문화유산답사기로도 읽힌다. 제목은 수락산에 은거하며 학문과 저술에 몰두했던 박세당의 묘지명 글귀에서 따왔다.

〈경향신문〉

《지식인의 두 얼굴》

저자는 거대한 관념 체계를 형성해 당대나 후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는 점에서 지식인에 대한 도덕적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거나 지나치게 인간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킨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식인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던진다. "무릇 지식인을 조심하라!"

〈국민일보〉

● 언론에 등장한 주요 도서

- 01 움베르토 에코의 문학강의
- 02 호모 노마드 유희하는 인간
- 03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 04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 05 가상역사 21세기
- 06 트리나강의 다리
- 07 일어나 감시다
- 08 뇌, 아름다움을 말하다
- 09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
- 10 비타민 쇼크
- 11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 12 지구의 생명을 보다
- 13 에드거 스노 자서전
- 14 다 빈치 코드의 비밀

테마 도서



일본' 에 관한 물음

일본은 무엇인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질문이 더욱 적절한 즈음이어선가. 일본의 모든 것에 궁금해하며, 그 표정과 속내를 읽으려는 책들이 부쩍 많아진 듯 하다. 지난달 들어 언론을 통해 대충 쫓히는 것만 해도 《10년 후 일본》《일본, 두 얼굴 이야기》《친일승려 108인》《일본, 일본인》《일본민족주의사》《일본총리열전》《을사늑약 1905, 그 끝나지 않은 백 년》《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일본의 신화》《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등 10여 권이 넘는다.

이들은 크게 보아 일본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서물과, 한일 관계사적 측면에서 조명하려는 서지작업으로 나뉘어진다. 《10년 후 일본》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전자다. 이 책은 언뜻 《10년 후 한국》과 서술 구도가 비슷할 것 같으나, 기실 그 시각은 판이하다. 〈동아일보〉는 "잃어버린 10년" 을 보낸 일본경제가 본격적 회복기에 접어든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키워드 50개를 소개한" 책으로 설명했다.

신문은 일본경제의 체질개선은 "전통적 일본 경영시스템에서 영미식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양자의 창조적 절충에서 나왔다고 봐야 한다"며 "저지는 세계화와 자유화에 맞춘 구조개혁을 계속하되 일본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고 소개

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책이 서술한, "상호 조정형 기술, 제1인자 경영, 슬로 소사이어리,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범위의 경제"를 일본경제 부활의 포인트로 꼽았다.

《을사늑약 1905, 그 끝나지 않은 백 년》은 한일 근·현대사와 일본제국주의 침략사의 길항을 재조명한 책이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여러 한일 조약의 일본 측 주역들이 남긴 문건이나 회고록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해 당시 상황을 박진감 있게 만든 한편의 기록영화"로 묘사하면서, "역사의식이 투철한 사람" 들은 을사조약을 "늑약(勑約)으로 부른다"는 저자 감삼웅 독립기념관장의 언급을 상기했다.

〈한겨레〉는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를 대하며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였던 것은 러일전쟁까지였다. 그 후로는, ... 술에 취해 말을 타고 달리는 여우와 같은 나라가 되었다.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여우의 환상은 무너졌다."는 본문의 표현을 특히 강조했다.

이 신문은 "시바 료타로가 주목했듯이 지은이는 일본 근국주의가 출발한 분기점으로 러일전쟁을 지목한다"며 "유럽 열강을 제압한 승리가 지나친 자신감과 착각을 불러 능력 이상으로 일본 군부를 도취시켰고, 여기에 우매한 대중들이 동조하면서 일본적인 파시즘이 태동해 일본을 광기의 질주로 몰아갔다는 것"이란 내용에 주목했다. **특보**